

글로벌 음악축제 ‘광주 버스킹 월드컵’ 올해도 계속된다

예산난으로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던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올해도 이어진다. ‘동구 동아리 페스티벌’과 ‘스트릿댄스 캠프’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해 온 생활문화 축제들도 계속된다. 다만 외형적 규모는 줄이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광주 버스킹 월드컵’을 비롯해 주민 참여형 축제와 행사를 통해 동구형 생활문화 도시 조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함께 성장해 온 글로벌 음악 축제다. 전 세계 거리 음악가들을 초청해 월드컵 방식의 경연을 펼치며, 음악을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해왔다. 2022년 첫 행사에서는 우승 상금 1억 원을 내걸어 주목을 받았고, 이후 해외 아티스트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충장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해마다 예산이 축소된 데 이어, 올해는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럼에도 재단은 축제의 연속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올해도 버스킹 월드컵을 이어가기로 했다. 격년제 개최 방안도 검토했지만 관객 이탈을 막고 축제의

동구문화재단, 생활문화 축제 개최 ‘스트릿댄스 캠프’ ‘동동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 구성·운영 완성도에 초점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 축제와 소규모·저예산 행사를 번갈아 운영하는 방식을 방향을 정했다.

올해 예산은 2억 원으로 지난해 5억2000만 원(시비 4억7000만 원·구비 5000만 원) 대비 6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축제와 행사 전반은 외형 확대보다는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선 경연은 기존 32장에서 8장으로 축소되며, 시상금은 총 1500만 원(1등 1000만 원, 2등 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대신 푸드트럭 확대 운영과 알콜박스 도입, 버스킹 공연과 골목관광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음악 축제로 꾸밀 계획이다.

10월 충장축제 기간에는 ‘스트릿댄스 캠프’도 열린다. 기존 실내에서 진행하던 댄스 배틀 경연

을 버스킹 월드컵과 연계해 5·18민주광장 야외 무대로 옮긴다. 댄스 배틀을 중심으로 원데이 마스터클래스와 힙합·팝핑·악강 등 장르별 스트릿댄스 워크숍, 스트릿 문화 셀러마켓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회 동구 동아리 페스티벌(동동 페스티벌)’도 열린다. 동구 지역 124개 생활문화 동아리, 1464명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분과별 전시와 공연은 물론 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재단은 동구를 체류형 예술여행 도시로 키우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동구철성골목관광 상품과 남도 미식 체험, 스포츠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여행 자원으로 확장한다. ‘여행자의 집(ZIP)’은 위탁 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단순 관광 안내를 넘어 체험과 교류, 참여 중심의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창현 재단 대표이사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각종 행사와 축제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며 “동구가 지닌 자산과 이야기를 잘 풀어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0월 ‘광주 버스킹 월드컵’을 비롯한 문화축제를 올해도 이어간다. 지난해 버스킹 월드컵 우승팀 ‘엘리아스’의 공연 모습.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오래된 재료에 덧입힌 현대적 감각

민은주 ‘미음완보 微吟緩步’ 전 2월 22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오래된 것들이 현대적 감각을 만나 발현하는

힘. 우리의 옛것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른 감성을 환기한다. 어떤 이는 고루한 이미지를, 이에 반해 어떤 이는 고아함을 느낀다. 애정의 눈길로 바라보면 사물이 겹쳐오는 말을 내면으로 들을 수 있다.

민은주 작가의 작품은 오래된 소재와 재료들로 구현돼 있지만 전혀 ‘촌스럽지’ 않다. 전통의 고재(古材)에 덧입힌 현대적 감각은 오히려 더 세련된 미감을 선사한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작가의 ‘미음완보 微吟緩步’ 전(오는 2월 22일까지). 전시실에는 조형 작품 30여 점이 걸렸다.

한지 위에 삶과 시간의 궤적을 새겨 넣는 작가의 섬세한 감각과 공력의 시간을 가능할 수 있는 전시다. 고재(古材)와 기와, 그리고 한지를 접목한 작품은 독보적인 분위기를 발하며 관람객의 발길을 붙든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다’라는 의미의 ‘미음완보(微吟緩步)’가 맞춤형에 맞물리는 지점이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삶을 있는 듯 없는 듯 덮어주었던 오래된 재료들이 작가의 심미적 감성, 섬세한 손끝의 감각에 의해 재탄생한 것이다.

기와의 유려한 굴곡을 따라 구현된 문양들은 질서에 의해 구획되었지만 그 질서를 넘어 생명력을 발한다. 세월이 깎인 기와 단면을 살려낸 부분은 무심한 듯 투박한 자연미가 투영돼 담백함을 전한다. 그와 달리 색채와 금박을 입힌 작품은 세련미와 조형미라는 현대적 감성을 전한다.

오랜 세월 견뎌온 기와, 한지의 물성을 다루는 작가의 손길도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세상의 시간과는 거리를 둔 채 수행하듯 점을 채워가는 작업은 예술 본래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민 작가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소재들이 전하는 묵직한 울림을 작품에 투영하고자 했다”며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져 발현하는



‘우연처럼 인연처럼’

생의 에너지를 관람객들이 마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 작가는 2014년 서울 가나아트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일본 후쿠오카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전라남도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깊고 부드러운 저음...바순이 들려주는 클래식 깊이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Bassoon’ 2월 1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오티움(Otium)’은 라틴어로 ‘일에서 벗어나 예술과 배움을 즐기는 의미 있는 여가’를 의미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 ‘오티움 콘서트’는 오전과 오후 한 악기를 조명한 콘서트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바쁜 일상 속 한가로운 휴식같은 공연을 선사해왔다. 올해 첫 오티움 콘서트가 찾아온다.

광주시향은 오는 2월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오티움 콘서트-Bassoon’을 선보인다. 목관악기 가운데 가장 낮은 음역을 맡는 바순은 깊고 부드러운 저음을 바탕으로 익살과 서정을 오가는 폭넓은 표정을 지닌 악기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영연 부지휘자의 지휘와 해설을 통해 바순의 음색과 역할을 들여다 본다.

공연의 문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Op.12’가 연



바순니스트 유성권 지휘자 김영연

다. 약혼자에게 바친 이 곡은 절제된 서정과 따뜻한 선율로 공연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끈다. 발렌타인데이 시즌과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연주되는 베버의 ‘바순 협주곡 F장조 Op. 75’는 바순을 전면에 내세운 대표적인 작품이다.

넓은 음역과 민첩한 기교, 오케스트라와의 생동감 있는 대화를 통해 바순이 지닌 음악적 가능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협연은 바순니스트 유성권이 맡는다. 그는 16세에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 최연소 입학·졸업하며 주목받았고, 21세에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수석 바순니스트로 임명돼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는 솔리스트와 앙상블 연주를 병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연의 마지막은 베토벤 ‘교향곡 제4번 B♭장조 Op.60’이 장식한다. 밝고 경쾌한 성격의 이 작품은 고전주의적 균형감 속에 베토벤 특유의 생기와 에너지를 담아내며 한 해 오티움 콘서트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올해 첫 오티움 콘서트를 통해 바순이라는 악기를 보다 친근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음악 속에서 잠시 머물며 여유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석 2만 원·A석 1만 원, 예스24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목포작가회의의 ‘영산강 시인들’ 북콘서트

31일 목포문화관

강 따라 흐르는 흐르는 일곱 매듭 시의 기억.

영산강은 남도의 많은 예술가들의 창작의 원천이자 무한한 상상력의 보고였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영산강을 모티브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영산강은 예술가들 키워낸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지난해 고재중, 김선태, 나종영, 나해철, 박관서, 이지중, 최기종 시인은 ‘영산강 시인들’(엠앤북스)을 펴냈다. 영산강 유역에 사는 시인들은 저마다의 서정과 풍경, 서사로 빛나는 자신 대표작 70편을 묶었다.

‘영산강 시인들’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오는 31일 오후 4시 목포문



화관.

목포작가회의등이 주최하는 이번 북 콘서트는 영산강 시인들의 서정적 숭고함과 애잔함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정희정 목포작가회의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다.

정희정 사무국장은 “이번 북 콘서트는 서정과 풍경, 서사로 빛어낸 시인들의 대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기회”라며 “생명과 시원, 영감의 감인 영산강의 의미와 역사 등을 함께 사유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